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스리랑카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8년12월7일 | 조사역(G3) 김도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66천 km ² (한반도의 2/7) 	인구 21.4백만명 (2017기준)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GDP 873.84억 달러 	1인당GDP 4,074.98 달러 	통화단위 Sri Lanka Rupee(SLR) 	환율(U\$기준) 152.4 

-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7분의 2수준임. 인구수는 약 21.4백만명이며, 싱할라족(75%)과 타밀족(11%)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실론(Ceylon)'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나 1972년 스리랑카로 국명을 변경함.
- 스리랑카 산업구조는 서비스업(62.5%), 제조업(29.7%), 농업(7.8%)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는 청정해안, 열대성 기후 등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발달함.
- 정치체제는 이원집정부제로 2015. 1월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SLFP, 스리랑카자유당 당수)은 동년 8월 총선에서 승리한 위크레메싱헤 총리(UNP, 통합국민당 당수)와 연합정부(내각)을 구성함. 그러나 연립정부 내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올해 10월 26일 시리세나 대통령이 위크레메싱헤 총리를 해임하고 전임 대통령인 라자팍사를 신임총리로 전격 임명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7. 11. 14 수교 (북한과는 1970. 6. 25 수교)

주요협정 항공협정('78), 문화협력협정('78), 투자보장협정('80), 무역협정('84), 이중과세방지협약('84), 과학기술협력협정('94), 무상원조협정('0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277,841	275,512	286,837	편직물, 아연도강판, 합성고무, 자동차
수 입	84,472	88,544	84,135	의류, 식물성 재료, 기타 비금속 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 총투자기준) 181건, 181,07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5.0	5.0	4.5	3.3	3.8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2	4.0	6.5	4.9
재정수지/GDP	-6.2	-7.0	-5.4	-5.5	-4.6

자료: IMF, EIU

경제성장률은 2018년 3.8%대 회복 전망

- 스리랑카는 2009년 26년간 이어진 내전 종식 후 국가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관광업 호조세로 2010~12년 중 연평균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반면 2017년 중에는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와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 중 최저치인 3.3%를 기록함.
- IMF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은 스리랑카 GDP의 0.4% 수준으로 조사됨.
- 한편 스리랑카는 유럽연합(EU)의 일반관세특혜(GSP+)* 자격 회복('17.5월),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18.1월) 등으로 수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의류 및 직물류 중심의 수출 신장이 기대되며, 항만 및 교통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중국과 인도의 투자 확대, 관광업 부문 성장 등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3.8%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유럽연합(EU)의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 및 노동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개발, 양호한 지배구조 분야에 관한 27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함. 스리랑카는 국제인권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2010년 8월 한시적으로 동 지위가 상실되었으나, 2017년 5월 GSP+ 혜택이 재개됨.
 - * 유럽연합(EU)이 개발도상국의 무역확대 및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대 유럽시장 수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스리랑카는 2005.7월~2010.8월 기간 동안 약 7,200개 품목을 유럽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함.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사업의 일환으로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에 따라, 인도양 주변국인 스리랑카 함반토타 및 콜롬보 항만개발사업, 콜롬보-라트나푸라 고속도로(73.9 km) 개선사업 등 다양한 항만, 교통 관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스리랑카의 인프라 건설 산업은 동 사업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연 10% 이상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국내경제

소비자물가는 2018년 중 안정화 예상되나, 루피화 가치 약세는 상승요인으로 존재

- 자연재해 이후 높아진 농산물 및 생필품 가격, 미 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5%로 전년(4.0%)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2018년 중에는 4.9% 수준의 물가상승이 전망됨.
- 한편 2018년 5월 홍수로 인한 피해, 글로벌 유가 회복세,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18.4월 8.75%→8.5%, △25bp) 및 미국의 금리 인상('18.9월)에 따른 미 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 약세* 흐름은 여전히 수입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환율(LKR/USD, 연말) : 131.0('14) → 144.1('15) → 149.8('16) → 152.9('17) → 171.5('18^f)

세제 개편 및 공공부채 축소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세 유지

- 스리랑카의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GDP의 7.0%로 높은 수준이었음. 시리세나 정권 출범 직후 2016. 6. 3일 IMF가 3년간의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 EFF)*을 승인한 이후 IMF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 실행으로 무분별한 차입 축소 및 세수 증가를 위해 노력한 결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6, 2017년 각각 5.4%, 5.5%까지 개선됨.

* 재정수지/GDP(%) : -6.2('14) → -7.0('15) → -5.4('16) → -5.5('17^e) → -4.6('18^f)

** IMF 프로그램 목표(2020년말 기준) : ① 재정수지 적자/GDP 3.5%, ② 조세수입/GDP 15%, ③ 공공부채/GDP 68%, ④ 외환보유액/평균수입액 5개월

- IMF의 '18.6월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2020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5%까지 축소하기 위해 세수확보, 국영기업 비효율 개선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으로 2018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비율이 GDP의 4.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세수증대를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2016. 11월 담배세 및 부가세를 각각 인상(72%→86%, 11%→15%) 하고 통신, 원단, 직물, 전자제품, 항공기 및 부품 등 면세품목을 축소기로 함. 2018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조세법(Inland Revenue Act, IRA)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신설, 배당 및 이자소득세 인상 등 세제도 재정비하였음.
- 이외에도 IMF는 국영기업의 비효율 및 수익성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가격(전력 생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을 반영한 에너지 사용료 책정방식 변경*과 만성적인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의 예산규정 정비 및 정기적인 감독 강화, 성과 평가 등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이행을 권고함.

* 스리랑카 의회는 2018년 5월 중 연료 가격 자동 가격 결정 모형(Automatic Fuel Pricing Mechanism)의 도입을 승인해 즉각 발효시켰으며, 금년 중 전기 요금 가격 결정 모형도 승인할 예정임.

국내경제

- 한편 높은 정부 부채 비율(2017년 79.3%)은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정부 당국은 2018.3월 부채관리법(Liability Management Bill)을 제정하고 IMF의 경제개혁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부채비율을 GDP의 68%까지 축소해야 함.
- 스리랑카 정부는 채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7.7월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투입된 중국차관(12.7억 달러) 중 90%인 11.2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여 부채를 크게 줄이는 대신 항구 지분 70%를 중국기업 앞으로 99년간 임대함.
- 또한 2015년 시리세나 정권 출범 이후 고율의 중국차관* 대신 ADB, 한국(EDCF), 일본 차관 등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0.15~3%) 양허성 금융 도입을 추진해 이자 비용을 축소하고자 함.
- *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투입된 중국차관(총 12.7억 달러) 중 일부(3.1억 달러)에 대해서는 6%의 고이자율이 적용되고, 나머지(9.6억 달러)는 2%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됨.
- 부채관리법(Liability Management Bill)은 부채상환을 위한 해외조달자금에 대한 중앙은행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됨. 동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관리하에 국가부채 상환 목적에만 해외 차입금이 사용되어야 함.
- 이는 과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등이 부채상환 목적의 해외 차입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방지하고자 제정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1,988	-1,881	-1,743	-2,310	-2,671
경상수지/GDP	-2.5	-2.3	-2.1	-2.7	-3.0
상 품 수 지	-8,287	-8,388	-9,090	-9,910	-11,606
상 품 수 출	11,130	10,547	10,310	11,360	12,611
상 품 수 입	19,417	18,935	19,400	21,270	24,217
외 환 보 유 액	7,316	6,543	5,189	7,031	6,710
총 외 채	43,035	43,925	46,608	52,008	55,108
총외채잔액/GDP	54.3	54.5	57.0	59.5	61.2
D.S.R.	20.6	14.7	16.1	16.4	21.3

자료: IMF, EIU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외화수급 상황 개선 어려울 전망

- 2017년 중 관광업 성장에 힘입은 서비스 수지 흑자, 경상이전 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식료품 및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2.7%를 기록함.
 -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중동지역의 거시경제 환경 개선으로 외화수입의 주요 원천인 해외 근로자 송금액이 회복세를 보이며 2016년 말(2.4개월) 대비 증가한 3개월을 기록함.
- * 서비스 수지(백만 달러) : 1,880('14) → 2,325('15) → 2,879('16) → 3,338('17) → 3,835('18^f)
 경상이전 수지(달러) : 6,227('14) → 6,193('15) → 6,453('16) → 6,327('17) → 6,509('18^f)
- 향후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개선 기대, 미국의 관세 혜택 재개('18.3월)에 따른 수출개선 등으로 2023년까지 스리랑카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그러나 2018년 신흥국의 자본유출, 기계, 장비류 등의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폭 심화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6개월 수준으로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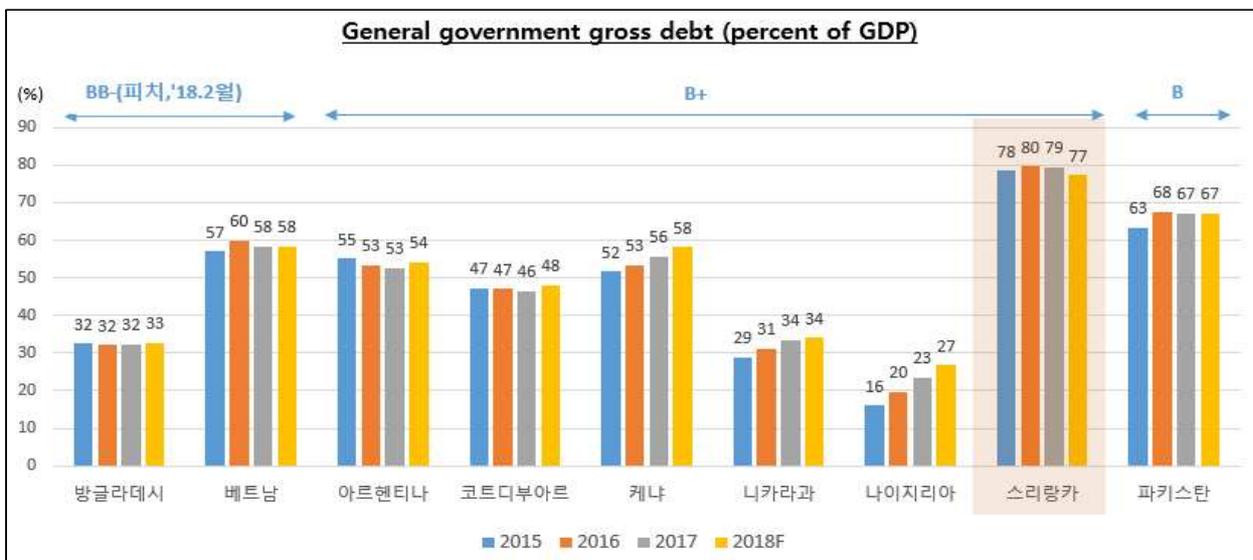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과도한 정부부채로 외채상환능력 취약

- 2017년 총외채는 GDP의 59.5%*, 정부부채는 GDP의 79.3%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 규모에 비해 외채 및 정부부채 잔액이 많은 편임.

* 신흥국(주요 원유수출국 제외)의 총외채/GDP 평균 : 53% (IMF)

- 특히 스리랑카 정부가 보유한 부채 중 외화표시 부채 비율은 50%에 달해 통화가치 약세로 인한 외채상환부담이 더욱 증가할 위험이 높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외채비용증가 및 상업금융기관의 해외차입증가 등으로 2017년 16.4%를 기록하고 있으며, 높은 공공부채비율, 대규모 재금융(Refinancing) 수요,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에 따른 낮은 외환보유액 수준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함.



자료 : IMF, Fitch

'부채의 덫'에 빠질 우려 제기

- 세계은행은 2017. 11월에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2018을 발표하면서 남아시아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이 중 스리랑카의 경우 총 외채규모, 총외채/총수출 비중 급증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타 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외환보유액을 문제로 지적함.
- 총 외채규모는 2011년 258억 달러에서 2016년 460억 달러로 5년 만에 80%가량 증가하였고, 총외채/총수출 비중 또한 269.9%(2017년)로 부채 상황 부담이 매우 큰 수준임.
- 2017년 기준 단기외채/총외채 비율이 13.6%로 만기구조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 100.5%로 전년(141.6%)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아 단기외채 상환 부담이 높음.

구조적취약성

만성적인 외환보유액 부족 문제

- 스리랑카는 수출의 60%가 의류, 차(Tea)이며, 외환보유액의 주요 원천인 해외근로자 송금은 세계경기에 민감한 편으로 안정적인 외화수입원이 부족한 데 비해, 수출의 2배에 가까운 수입과 과다한 외채로 만성적인 외화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2018년 말 예상 외환보유액은 67억 달러 수준으로 2017년말 70억 달러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IMF와의 경제개혁 가이드 라인에 따라 2020년까지 외환보유액은 5개월분 수입금액 수준으로 확대해야 함.

취약한 제조기반 및 수출시장 편중 등으로 만성적인 무역적자 기록

- 2009년 30년에 걸친 내전 종식 이후 국가경제개발 정책 본격화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국내 제조기반이 취약해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가 오히려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더불어 EU 및 미국 시장 앞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환율변동, 수출 대상국 경기변동과 같은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함.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주요한 경제발전 저해 요인

- 최근 우기와 건기의 양상이 예년과 달라지면서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지출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은 스리랑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임.
- * 적도에서 불어오는 남서계절풍(5~10월)과 벵골만에서 불어오는 북동계절풍(12~3월)이 각각 남서지역과 북동지역에 많은 비를 가져오며, 이에 맞춰 벼농사를 함.
- 2017년 상반기에는 4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으로 농산물 피해가 컸으며 특히, 댐저수율이 사상 최저치에 도달해 수력발전량이 크게 부족하여 화력발전량을 확대하기 위한 기름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예산 지출이 확대됨.
- 스리랑카 기상청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지속된 엘니뇨(EI Nino)로 인한 가뭄이 발생해 2018년 에도 농업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성장잠재력

서남아 물류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

- 스리랑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상 예전부터 동서양 향해의 중간기착지이자 동서 교역의 관문이었음.
-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구상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남부의 함반토타 및 콜롬보 항을 인도양의 핵심 거점항구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선정, 2007년부터 각 항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콜롬보 국제금융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옴.
- 중국은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의 에너지와 화물 수송로에 위치한 항구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중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인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세계 각지 주요 항구들을 연결하면 진주목걸이의 형태가 된다고 하여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함.
- 진주목걸이 전략에는 파키스탄의 과다르, 스리랑카의 함반토타와 콜롬보,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미얀마의 시트웨가 포함되며, 해당국 정부는 자국의 물류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스리랑카는 중국의 차관(12.7억 달러)을 얻어 함반토타 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완공이후 항만 운영수익이 차관원리금 상환에 많이 부족해진 나머지 차관의 90%를 출자전환하여 중국항만공사에게 지분 70%와 항만운영권을 장기(99년간)로 임대하기로 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국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면밀한 사업성 검토 및 자금수급 상황 관리 등에 있어 여러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의 新 실크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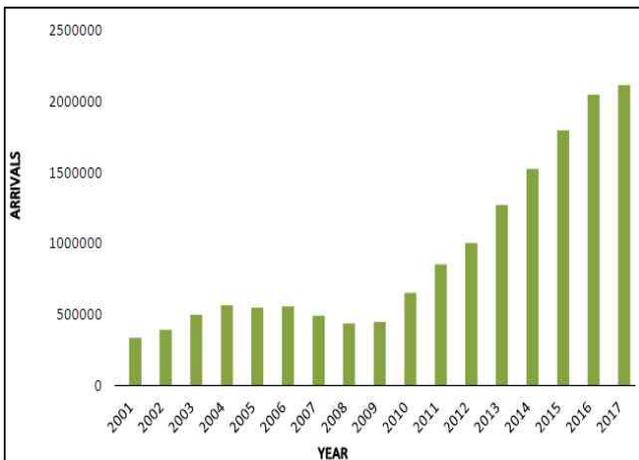
자료 : "Building the New Silk Road(2015. 5. 22일),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미국)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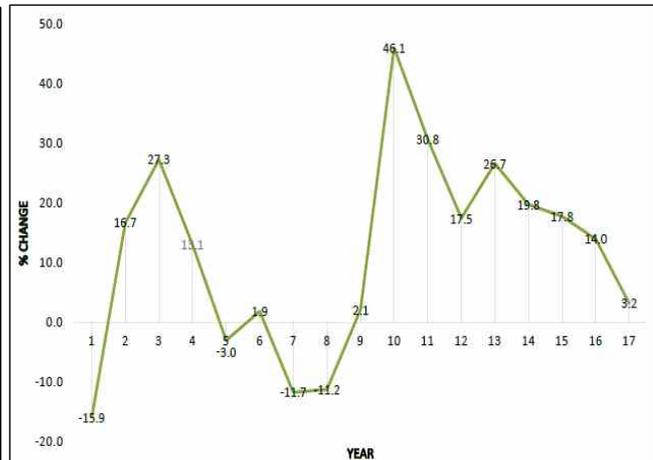
- 섬나라의 특성상 4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불교유적지와 넓은 차밭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관광전략계획 2017-2020' 수립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으로 관광객 수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스리랑카 관광업은 2017년 기준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35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됨. 스리랑카 정부는 2020년까지 관광수입을 70억 달러로 높이고 연간 4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내전 종식 후 5년간 연평균 22%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18년 1월~9월 중 스리랑카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173만 명으로 집계됨.

* 관광객 수(만 명) : 160('14) → 200('15) → 250('16) → 258('17)

스리랑카 방문 관광객수 (2001-2017)



관광객 성장률 (2001-2017)



자료 : Statistical Report 2017, 스리랑카 관광청

정책성과

EU의 일반관세특혜(GSP+) 재부여로 수출확대 기대

- 스리랑카는 2005년 7월부터 EU로부터 일반관세특혜(GSP+) 지위를 부여받으며 EU시장 앞 무관세 수출이 가능했으나, EU는 내전으로 발생한 인권침해가 UN 결의안 등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10년 8월 GSP+부여를 취소하였음.
- 시리세나 정부는 2015년 4월 19차 개헌 등으로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을 약속, 2016년 7월 EU 앞 해당 지위 회복을 신청, 2017년 5월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을 인정받아 EU 의회 결의를 통해 GSP+ 지위가 재부여됨.
- EU는 스리랑카의 제2의 수출시장(2017년 33%)으로 향후 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무관세 수출을 통한 수출확대가 기대됨.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스리랑카는 인도('98.12월 체결, '00.3월 발효), 파키스탄('02.8월 체결, '05.6월 발효)에 이어 3번째로 2018. 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금번 협정은 기존과 달리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구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라는 특징이 있음.
- 싱가포르 FTA 체결을 계기로 현 정부가 중국 및 방글라데시와 추진 중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EU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총수출의 55%)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함으로써 대외적인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싱가폴은 스리랑카의 주요 FDI 유입국(전체 FDI 유입액의 10%)으로 금번 싱가포르와의 FTA는 투자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외투자 유치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조세법(Inland Revenue Act) 개정 통한 재정 상황 개선

-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부채 감소 및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법 개정을 추진 하였으며 2017.9월 국회 통과 후 2018.4월 공식 발효됨.
- 금번 조세개혁에는 소득세 세율 구간 추가, 이자소득세 증가 및 고령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 도입, 과세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소득세	- 최고 소득세율 구간 신설 : 최고 소득세율 16% → 24%(↑)
이자소득세	- 법인 : 10% → 14%(↑), 개인: 2.5% → 5%(↑) - 매월 미화 800달러 이상의 이자를 수령하는 60세이상 고령자 : 5% 세금 부담
양도소득세	- 토지 및 건물 등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양도시, 10% 세금 부담
과세범위	- 건물임대료 납부, 보험금 수령, 대출이자 납부 등의 경우에도 5-10% 세금부담

자료 : 외교부

정치동향

집권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및 라자팍사 신임총리 전격 임명 등 정치 불안정성 증가

- 전 보건부 장관이던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가 2015.1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소속당인 통합국민자유연합(UPFA)*이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위크레메싱헤(Ranil Wickremesinghe) 소속 야당인 통일국민당(UNP)과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정국을 운영하고 있었음.
 - * 통합국민자유연합(UPFA)은 시리세나 대통령의 출신 정당이자 라자팍스 전 대통령이 이끌던 스리랑카자유당(Sri Lanka Freedom Party, SLFP)이 주축을 이루는 연합정당임.
- 2018년 2월 지방선거에서 전 대통령인 라자팍사는 부패혐의, 타밀족 반군 학살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스리랑카인민전선(SLPP)이 지방의회선거(340개 기초 단체의원 8,350명 선출)에서 45%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차지하며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떨어졌던 국민지지도를 완전히 회복함.
 - * 2018.2월 지방선거 결과, SLPP(라자팍사 전 대통령 소속당) 44.7%, UNP(위크레메싱헤 총리 소속당) 32.6%, UPFA(시리세나 현 대통령 소속당) 8.9% 등을 차지함.
- 금번 지방선거 결과는 시리세나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2015년 5.0% → '17년 3.1%), 중국과 99년간 함반토타 항구 임대차계약 체결,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 미비 등 그간의 국정 운영 성과 부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승리를 계기로 2018. 4월 위크레메싱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대통령의 의회중단 조치(2018.4.12~5.8) 및 일부 연립정부 내 의원 탈당에 따른 내각 교체 등 지지 기반이 달랐던 UNP-UPFA(시리세나계) 간 연합정부 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됨
 - * 2018. 4월 4일 스리랑카 의회는 위크레 메싱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및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총 225명 의원 중 122명의 반대로 부결됨.
- 이후 2018. 10. 26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오던 라닐 위크레메싱헤 총리를 경질하고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신임 총리로 전격 임명하기에 이룸. 또한 기존의 연합정부(UNP 및 UPFA)를 접고 라자팍사계와 임시 정부를 출범시키고자 뜻을 밝힘.
- 현 정부는 잠정정부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전달, 신속한 내각 구성 및 행정수행을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신임 총리 임명 이후 정치적 불안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2018년 10월말 환율 급등)되고 기존 연합정부를 구성했던 UNP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고 있음.

사회동향

인간개발지수는 주변국 대비 양호하나, 국가경쟁력 지수는 하위 수준

- 스리랑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2017년 기준 189개 대상국 중 76위로 주변 서남아 국가들(인도 130위, 방글라데시 136위, 파키스탄 150위)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함.
 - *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

사회동향

- 반면, 2017-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효율성(131위), 기술대응능력(106위)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높은 국가부채 문제('17년 GDP의 79.3%)로 거시경제 환경(94위)이 저하되고 인프라(85위) 부족한 등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85위*로 전년(138개국 중 71위) 대비 하락함.

* 서남아 인접국 순위 : 인도 40위, 방글라데시 99위, 파키스탄 115위

타밀족 반군(LTTE)과 싱할라족 간 갈등 관계 여전

- 스리랑카의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Hindu Tamils)과 다수민족인 불교계 싱할라족(Buddhist Sinhalese) 간의 내전은 1983년 7월 타밀 분리주의자들이 정부군 13명을 피살한 사건으로 촉발되었으며, 2008년 1월 휴전협정 폐기 이후 정부의 타밀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성공하면서 2009년 5월 26년간의 내전이 종식되고 2011년 8월 국가 비상사태도 해제됨.

* 1815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던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직후 집권 싱할라족 정부는 싱할라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채택하고 대학입학 및 공무원 진출에 있어서도 싱할라족을 우선 배정하고, 불교 우대정책을 펼치는 등으로 힌두교도인 타밀족의 반발이 있어옴.

- 하지만 26년에 걸친 오랜 내전으로 7만 명의 희생자와 30만 명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함. 시리세나 정부는 집권 이후 2016년 8월 타밀족에 대한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법안 마련 등 민족 간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까지는 타밀족과 싱할라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임.

빈부격차 문제로 인한 사회 불안

- 스리랑카는 서남아 지역에서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국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소득·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지니계수는 0.45로 3년 전의 0.48 대비 소폭 개선됨. 하지만 도·농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커 저소득층이 집중된 북·동주, 우바주와 중부주 남쪽 지역의 사회적 불만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국제관계

중국, 인도 사이에서 균형적 실리외교 노선 채택

-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던 전 라자팍사 대통령 집권 시절과 달리 현 시리세나 대통령은 인도 및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균형적인 실리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스리랑카는 전 라자팍사 대통령 재임 기간('05~15년) 중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참여국으로 함반토타 항(약 12.7억 달러 규모) 및 콜롬보 항(약 15억 달러) 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도입 및 투자유치를 추진함. 이로 인해 중국 앞으로 고율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리랑카 정부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비난 여론이 있었음.
- 2000년 3월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ISFTA) 발효 및 2015년 시리세나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 간 국민방문이 이루어지며 양국 관계가 호전됨. 현재 상품뿐만 아니라 IT 등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인도와 경제기술협력협정(ETCA, Economic and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등 스리랑카와 인도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서방세계와의 신뢰 회복 노력

- 스리랑카는 미국, EU로부터 원조, 재난구조, 무역관세 특혜 등으로 경제성장을 지원받아 옴. 특히, EU는 2010년 인권 및 노동권 부문에서의 중대한 국제협약 미이행 사실이 발견되어 EU의 일반관세특혜(GSP+)*를 박탈하였으나, 정부당국의 인권문제 개선 노력을 감안하여 2017년 5월 EU는 스리랑카의 GSP+ 지위를 회복시킴.
- * 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 및 노동에 대한 권리, 지속적인 개발 및 양호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 분야의 27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함.
- 서방과 인도는 스리랑카 내전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해 UN 인권이사회에 진상조사 및 화해조치를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2012년부터 매년 채택하였음. 스리랑카 정부 당국은 2013년 실종자위원회 설립, 2016년 실종자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2017. 3월 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권결의안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함.

외채상환태도

ECA 금융지원 중 소액 연체 있으나, 외채상환태도는 대체로 양호

- 2018.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 19.4억 달러(단기 3.7억 달러, 중장기 15.7억 달러) 중 0.05%에 해당하는 소액(0.9백만 달러)이 연체되었고 과거 파리클럽으로부터 2005년 한 차례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었으나 현재는 전액 상환이 완료됨.

*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스리랑카에 미쳐 약 5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남부지역 해안부근 대부분의 가옥이 파괴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1(2017.12)	D1(2016.11)
OECD	6등급(2018.6)	6등급(2017.6)
Moody's	B2(2018.11)	B1(2017.12)
Fitch	B(2018.12)	B+(2017.2)

OECD 6등급 유지, 국제신평가 중 Moody's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 OECD는 '18. 6월 중 순조로운 IMF 차관 지원 프로그램 이행, 세제개혁 등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치안 불안, 높은 공공부채 비율(GDP의 79%) 등 취약한 재정상황, 유동성 부족 우려 등을 근거로 기존 6등급을 유지함.
- Moody's, Fitch 등 국제신평사는 최근 스리랑카 내 정치적 혼란, 과도한 국가부채와 낮은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인한 높은 외채상환 부담, 심화되고 있는 리파이낸스 위험 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일제히 종전 대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함.

- 스리랑카는 2017년 발생한 자연재해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일반관세특혜 지위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 관광업 성장 등에 힘입어 2018년 중에는 3.8%의 경제성장이 기대됨.
- 재정수지 적자는 시리세나 정권 출범 이후 세제개편, 공공부채 축소 등의 IMF 경제개혁 조치로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식료품 및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한편 금년 10월말 시리세나 대통령의 위크레메싱헤 총리 전격 해임 발표, 신임총리로 전 대통령인 라자팍사를 임명 등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IMF 경제개혁 조치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양자간 FTA 체결 노력 등으로 수출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과도한 정부부채와 낮은 외환보유액으로 인해 외채상환부담이 높은 점과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신평사가 일제히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향후 당행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OECD 6등급) (수은 D1)	(OECD 6등급) (수은 D1)	(OECD 6등급) (수은 D1)	(OECD 5등급) (수은 C3)
GDP 규모(억 달러)	874	673	221	2,621
1인당 GDP(달러)	4,075	1,278	1,379	1,606
경제성장률(%)	3.3	6.8	6.9	7.1
소비자물가상승률(%)	6.5	4.0	2.9	5.7
재정수지/GDP(%)	-5.5	-2.7	-1.9	-3.1
경상수지/GDP(%)	-2.7	-4.3	-8.5	-1.2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3.0	2.6	5.9	6.4
외채상환액/총수출(%)	16.4	3.4	4.1	2.9
총외채잔액/GDP(%)	59.5	14.5	49.6	16.5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100.5	23.8	32.5	23.8